

이긴자 일대기 [3]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이하며, 필자는 이긴자 일대기를 출생기에서 10대 시절, 20대 시절, 30대 시절, 40대 시절, 50대 시절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하고 이렇게 연재되는 기사 말미에선 이긴자로 성도(成道) 이후 천지공사와 관련된 것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이긴자의 생애는 대나무의 성장 과정과 같은 삶으로 점철되고 있다. 대나무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첫째 마디가 썩지 아니해야 그 위에 둘째 마디가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둘째 마디가 썩지 아니해야 그 위에 셋째 마디가 생겨나 계속해서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 몸을 입고 태어나 반드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자격을 획득해야만 당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에, 50살에 성도하기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파란 만장한 절체절명의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마침내 완성자 이긴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마귀에 의해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하나님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장 지구와 우주의 멸망을 획책하던 대장 마귀는 이긴자에게 삼킨 바 되어 소멸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인간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출생기

조희성님이 태어난 부락은 중봉(重峯) 조현(趙顯)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 조현(趙顯)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사충신(四忠臣)으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매우 훌륭한 충신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조정에 상소(上疏)를 올리고 또한 직간(直諫)을 하였다고 함경도로 또 옥천으로 귀양을 가셨던 것이다.

그때 병력을 준비하였더라면 임진왜란 때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때가 임박하니 귀양살이 중에서도 의병을 모아 활쏘기 연습과 창칼 쓰는 법을 익히게 하였고 왜병이 쳐들어올 때, 너무나 활을 많이 쏘아서 열 손톱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활을 쏘아 발톱도 다 빠지고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를 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훌륭한 조현(趙顯)선생은 “이 부락(감정리坎井里)에 세계에서 제일가

는 큰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예언하셨다고 한다. 조희성님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친손자가 조현선생이 예언한 인물임을 일찍이 아시고 금지옥엽으로 키워왔는데 6.25전쟁 때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포로로 복송된 이후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가운데 친손자가 고향 김포로 돌아오기를 에타게 기다리시다가 결국 속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조희성님이 포로생활 3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할아버지께서 2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애통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희성(熙星)이가 장차 큰일을 할 골상을 지녔어. 손에는 임금 왕자의 손금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점이 있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친 손자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 조희성 주님의 김포 생가

10대 시절

조희성 주님은 이웃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독에 있는 쌀을 바가지로 굶어다가 아무도 모르게 굶주리는 집안의 부엌에다가 갖다놓곤 하였다. 주님은 집안 식구들 먹거리에 부족한 쌀을 어머니 몰래 퍼다 이웃집에 주었기에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 마음이 우리나라와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에도 새벽 일찍이 지게를 지고 장터에 나가 쌀감을 팔기도 하였다.

초등학교생이었던 주님은 방과 후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집 뜰 안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장작을 읍내에 내다 팔아 가계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 장작을 힘에 겨울 정도로 짊어지고 눈이 와서 무릎까지 빠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2km가 넘는 눈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읍내에까지 가서 팔아온 하였다. 그 추운 눈 덮인 길을 끄꿍거리며 고통을 참고 견디며 중간중간 가다 보면 미투리 짚신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와 발이

시려 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손은 손대로 시려 손끝을 칼로 베어내는 듯 극심한 고통이 가해 오는 그걸 참고 한 발짝씩 나아가다. 결코 후회하는 법은 없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 좀 쉬어야겠는데, 온통 눈으로 덮인 상태라 피할 장소도 될 곳도 없어 이중 삼중으로 더해지는 고통에 엉엉 울면서도 기어이 읍내까지 가서 장작을 팔아온 했던 것이다. 보통 아이들 같은데, 만약 가더라도 좀 가볍게 짊어지고 가겠지만, 그렇게 하니 나고도 여전히 전날의 양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게 힘에 겹도록 짊어지고 또 울면서 가는 것이었다.

이같이 항상 극한에 달하는 고생을 하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 나갔던 것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도 남보다 많이 했고,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였으며, 집을 짊어져도 언제나 힘에 겨울 정

도로 짊어지고 끄꿍거리며 오금을 제대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지고 다니는 습성이 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기꺼이 스스로 자신을 짓기기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목표를 세우면 꾸준하게 했던 것이다. 잠시라도 집에서 드러누워 쉬거나 놀지 않는 성품이었으며, 할 일이 없으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쓴다든지 하였지 멍하게 지내는 법이 없었다.

20대 시절

교회 총 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다가 인민군에게 붙들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데모로 풀려나와 집에 있으니, 조희성 주님이 유능한 청년이라는 것을 안 인민군은 무슨 대외,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주님에게 나와서 자기네 일에 협조하라고 채근하는 것이었다. 자주 거절하다보니 도저히 불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고로, 자전거에 보리쌀 한 말을 싣고 김포를 떠나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하숙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랑진흙 오니까 유엔군 비행기가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것이었다. 폭격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인데, 하늘을 보니 집체만 한 포탄이 머리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전봇대를 붙잡아야 산다하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버리고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를 부둥켜안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여 하숙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가서, 인민군이 들이닥치면서 주님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너, 조희성이지? 손들어!” 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흑석동에 있는 인민군 본부로 끌고 갔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골수분자였

던 하숙집 주인이 인민군에게 고해바치기를, “방금 우리 집에 하숙하는 대학생이 와있소. 그의 형이 수도국의 경찰부장을 하고 가끔 들러 동생을 만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소.”라고 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반도 남쪽에서 전쟁이 치열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서울에 그대로 두면 필시 죽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숙집 주인의 마음을 감싸게 하여 주님을 인민군들에게 넘기게 주장하셨다. 주님이 잡혀간 곳이 흑석동에 있는 인민군 본부 건물의 지하실이었다.

인민군들은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되는 학생인 주님의 양쪽 무릎오금에 네모난 마찰철주를 끼워 놓고 묶어 앉혔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너무 아파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들은 주님이 못 일어서 대외,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주님에게 나와서 자기네 일에 협조하라고 채근하는 것이었다. 자주 거절하다보니 도저히 불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고로, 자전거에 보리쌀 한 말을 싣고 김포를 떠나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하숙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랑진흙 오니까 유엔군 비행기가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것이었다. 폭격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인데, 하늘을 보니 집체만 한 포탄이 머리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전봇대를 붙잡아야 산다하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버리고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를 부둥켜안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여 하숙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가서, 인민군이 들이닥치면서 주님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너, 조희성이지? 손들어!” 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흑석동에 있는 인민군 본부로 끌고 갔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골수분자였던 하숙집 주인이 인민군에게 고해바치기를, “방금 우리 집에 하숙하는 대학생이 와있소. 그의 형이 수도국의 경찰부장을 하고 가끔 들러 동생을 만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소.”라고 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반도 남쪽에서 전쟁이 치열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서울에 그대로 두면 필시 죽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숙집 주인의 마음을 감싸게 하여 주님을 인민군들에게 넘기게 주장하셨다. 주님이 잡혀간 곳이 흑석동에 있는 인민군 본부 건물의 지하실이었다. 인민군들은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되는 학생인 주님의 양쪽 무릎오금에 네모난 마찰철주를 끼워 놓고 묶어 앉혔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너무 아파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들은 주님이 못 일어서 대외,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주님에게 나와서 자기네 일에 협조하라고 채근하는 것이었다. 자주 거절하다보니 도저히 불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고로, 자전거에 보리쌀 한 말을 싣고 김포를 떠나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하숙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랑진흙 오니까 유엔군 비행기가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것이었다. 폭격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인데, 하늘을 보니 집체만 한 포탄이 머리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전봇대를 붙잡아야 산다하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버리고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를 부둥켜안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이긴자 일대기

상단에 이어서

20대 ~ 30대 시절

조희성 주님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근무하던 한국군 28사단이 서부전선 영국군 24사단과 교대를 하는 바람에 동투전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쌍방의 사단이 교대할 때 주님이 통역을 맡았는데, 영어로 결재하는 주님을 보고 “어떻게 발음이 그리고 정확하냐?”고 하면서 영국군 장교들이 여간 좋아하질 않는 것이었다.

동투전 안흥리라는 곳에서 농축 기술학교를 세우고 양주군 남면에 상수중학교를 세웠다. 그밖에 광주와 대구에 상명중·고등학교와 전북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 재건 중·고등학교 개교식 기념사진(조희성님은 정교복 착용) 1962. 5. 6.

에 금마 재건 중·고등학교(현 익산중·고등학교) 등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웠다. 전방 비무장 근방에 발령을 내 임진강을 건너가 백학이라는 곳에 백학 장로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나와서 후방 임진강을 건너는 쪽으로 가서 파주군 적성면 마지리라고 하는 곳에 마지 감리교회를 세우고 후방으로 발령을 받았던 것이다.

언제나 이름도 없이 묵묵히 누구도 모르게 젊음을 불살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희생 생활을 계속하였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리” 하는 시조를 즐겨 말하였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격언

도 가르치며, 불가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품고 목적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교과서를 들고 “오늘은 몇 과 할 차례냐? 어제는 어디까지 했느냐?”는 식으로 해 보지 않았다. 백북 하나만 가지던 교과서, 참고서 필요 없이 영어, 수학, 국어, 국사, 물리, 화학, 지리 등 모든 과목을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주님의 별명이 ‘백과사전’이었던 것이다. 현재조차 없어서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선생님 이 교과서도 펼쳐지 않고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전 과목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를 신기하게 여겨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한번 수업을 듣고는 공부하겠다고 달려붙었던 것이다. 조희성님의 교수법은 간단 명료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격언과 교사성이 등도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반드시 그날그날 배운 공부는 그날그날 암기하였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었다.

40대 시절

영모님은 제2선양촌 덕소에서 성장일로에 있던 슬레이트, 알루미늄 새시 등의 공장 문을 닫고 제3선양촌으로 이동하였는데, 특히 시온합성 섬유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을 많이 한 공로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동탑훈장을 영모님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영모님은 외부종업원을 위해 시온합성 섬유공장내부에 5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온전도관’이라는 제단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하루는 영모님이 김상욱 관장에게 연락을 취해 내 집무실로 모이게 하라.”는 것이었다. 즉시 각 공장장에게 전화하여 영모님의 소집명령을 전하자 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오후 4시경에 영모님 집무실로 모두 모였다. 다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문을 열고 영모님이 들어 오시더니 찬송 한 장을 부르자는 것이었다. 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곧바로 영모님께서 “금식기도를 삼십일씩 열

네 번을 하였다.”라고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그럼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에 시온전도관 사람들 모두 ‘어떻게 30일씩 14번씩이나 하실 수가 있는가? 참으로 영모님은 대단한 분이여!’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다.

그 다음날 영모님께서 기장신양촌에서 새벽예배를 인도하실 때, 어제 집무실에서 공개한 ‘금식기도를 삼십일씩 열네 번을 하였다’는 말씀을 전 교인들에게 재차 전하시는 것이었다. 전도관 교인들은 지금까지 영모님 당신의 걸어오신 신앙 간증담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 금식기도에 관한 간증은 정말 생소하고 대단한 영모님으로 각인되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을 한 주인공이 영모님 자신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긴자가 되시는 조희성 주님이었던 것이다. 당시 하나님께서 영모님의 입을 통해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데에는 깊은 뜻이 숨어있었는데, 바로 1978년 8월 18일에 조희성님을 소사 신앙촌의 노고산 밀실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셨던고로 이에 마귀의 사망권세를 쥐고 마침내 밀실에서 이긴자가 곧 나올 것을 내다보시고 이 이긴자를 미리 증거하신 것이었다.

50대 ~ 60대 시절

하나님께서 1962년도 해와 이긴자를 이미 찾으셨으며 1980년도에 아담 이긴자 조희성님을 찾아 삼위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신 것이다. 그래서 1980년과 1981년도에 전도관을 팔고 공장을 팔고, 해산을 하였던 것이다. 초창기 이만제단시대부터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연일 단상에서 강하게 치시면서 ‘구원의 촛대’가 전도관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하셨는데, 이제 와서 전국 전도관을 중앙교회란 명칭으로 다 바꾸게 하니 이때가 1980년도 초반이었다. 이는 전도관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영모님께서 웅변한 것이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이라는 이름도 영모님이 직접 지어서 조희성 주님에게 그렇게 간판을 달라고 해서 천지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글자가 열석자인데 옛날 강증산 선생이 내가 이 세상 다시 올 때에는 열석자 몸으로 온다는 예언의 맥락이 닿아 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5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5

영역 일체 :

하나님 = 생명 = 사람의 빛 = 성령 = 영 = 마음(양심) = 피 = 육체

Oneness of Spirit and Body :

God = life = light of human = Holy Spirit = Spirit = heart (conscience) = blood = body

(생명 =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이라 - 잠언서 4:23

(Life = Mind) For in the heart is the source of life - Proverbs 4:23

(생명 =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 레위기 17:11

(Life = Blood) The life of the body is in the blood - Leviticus 17:11

(생명 = 피) 모든 생물은 피가 그 생명과 일체라 - 레위기 17:14

(Life = Blood) The blood of every living thing is one with its life - Leviticus 17:14

(생명 = 피) 생명이 되는 피째 그 고기를 먹지 말라 - 창세기 9:4

(Life = blood) Do not eat the meat with the blood that becomes life - Genesis 9:4

(생명 = 피) 피는 그 생명이다 - 신명기 12:23

(Life = Blood) Blood is the life - Deuteronomy 12:23

(하나님 = 생명 = 사람의 빛)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 요한복음 1:1

(God = Life = Light of Human)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and in Him was life, and life was the light of man - John 1:1

(하나님 = 생명) 하나님은 ~ 내 생명의 능력이니 - 시편 27:1

(God = Life) God is the strength of my life - Psalm 27:1*

by Alice